

마지막 인간 _ A Last Person

7

[지구 에는, 우주 에는 '인간' 만 존재하지 않는단다. 아이야.]

푸른 몸에 얼굴에는 검은 자국들이 무늬처럼 새겨져 있고, 삐쩍 마른 손을 가진 '소녀'는 나에게 이야기 했다. 나는 서서히 파악되는 상황과 종말에, 풀썩인지 아닌지 모르는 곳에 주저앉았다. 아, 아아. 하염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눈물은 그저 의무적인 것 이었다. 나 밖에 눈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이.

흐려진 시야 사이로 나는 다시 그 소녀를 쳐다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소녀 뒤로 보이는 행성은 마치 태양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붉은 불길로 휩싸이며 생명을 앗아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란. 나는 나의 소중한 이와 내 생의 의미를 모두 가져가 버린 '그 사건' 의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 이 모든 종말의 시작은, 내 삶의 죽음의 시작은 모두 '그 사건' 이었다.

나는 차오르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어둠 앞에서 조용히 눈 감았다.

-1

2100년까지 발명된 기술 중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 하였다고 뉴스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자부하는 우주선에 우주 비행사 들이 탑승했다. 철저한 훈련과 검증을 받은 4명 이었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우주로 가기 위해. 그 순간만을 위해 노력한 이들 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시청자들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과 곧 출발할 우주선에 대해 생중계하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시작 되었다.

홀로그램으로 그 순간을 3D로 보던 나는 박수갈채를 친 사람들이 외치는 함성과 같은 소리를 따라 외쳤다.

5

4

3

2

1

발사!

우와아__ 내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고, 우주 비행선은 엄청난 불길과 먼지를 휘 날리면서 날아올랐다. 오르고 올라서, 아파트 보다 더 높이. 구름보다 더 높게.

이제 뉴스에서는 열심히 떠오르고 있는 우주선에 탑승한 4명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있었다. 하나같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뉴스를 틀어 놓은 채 의자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to. 엄마에게.

나는 이 편지를 100 편정도 써야 했다. 그러면 엄마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는 이제 홀로그램 속에서 환히 웃고 있었다. 앵커가 이 우주 비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이며.. 하고 엄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다. 조금 심술이 나서 쓰던 편지의 글씨체를 일부로 삐뚤삐뚤하게 썼다. 나는 엄마 얼굴을 본 것이 손에 꼽는데. 아는 것도 달랑 이름이랑 생김새, 그 따뜻함뿐인데. 나보다 앵커가 엄마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흥.

-보고싶어요.

한 문장이 쓰여 졌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다시 홀로그램으로 시선을 던졌다. 이제 뉴스에서는 대기권을 나와서 우주로

향하는 우주선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주선은 검은 공간을 오르고, 오르고, 올랐다. 처음 출발 했을 때 보다 조금 훌쩍해 진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위성의 신호가 끊길 때 즈음에.

'그 사건' 이 일어났다.

우주선은 무언가에 부딪혔다. 앞부분이 빠르게 뭉개지고 내부 부품이 폭발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우드득, 쿵. 검은 우주 공간에 알록달록 색채가 물들었다. 우주선에 타고 있던 이들은 미처 대처할 새도 없이 붉은 물감을 덧칠하며 죽었다.

그리고 곧이어 밝은 빛이 위성에 포착 되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앞에서 빛나는 것처럼, 밝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빛 이었다. 이는 분명 우주선이 부딪힌 어두운 공간에서 나는 빛 이었다. 마치 공간이 깨진 듯, 황홀한 풍경이 렌즈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보석은 마치 우주선과 부딪힌 충격에 부서진 듯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점점 옆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퍼져 나갔기 보다는 검은 우주 공간에 숨겨져 있던 황홀한 공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보였고, 그게 사실 이었다.

얼마 뒤에, 뉴스 에서는 우주 암흑 물질과의 반응을 통해 투명 상태로 존재 하면서 우리들이 발견 하지 못했던, 지구의 궤도에서 달과 부딪히지 않고 돌고 있던 '숨겨진 행성' 에 대해서 떠들어 댔다.

나의 세계는 '그 사건' 으로 인해, 새로 발견된 행성의 표면과 같이 부서져 버렸지만, 아무도 부서진 내 세계에 대해, 엄마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반짝임과 '새로운' 것이라는 광기에 사로잡혀 어두운 면을 보려 하지 않았다.

"어디로 갔어?"

"24-G 번 골목길로! 잡아!"

다 다 다 다. 땅을 박차는 소리가 점점 다급해 졌다. 헉, 헉 하고 내쉬는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나는 골목길에 휩싸인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 언제나 같이 내 감을 맹신하며 걷고, 방향을 틀고, 또 걸었다. 그리고 멈췄다.

경찰들은 나에게 던져 붙인 GPS위치를 보다가, 한 곳에 멈춰 있는 점에도망치던 포획 대상 인물이 GPS를 바로 뺐 것이리라 판단하고 GPS를 회수하기 위해 얇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였다. 그들의 손에는 전기충격 도구, 레이저로 짚은 대상을 바로 포획하는 전자 그물망 등 갖은 침단 도구들이 들려 있었으나 그것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경찰 두 명이 한숨을 내쉬면서 떨어진 GPS 기계를 줍는 순간과 동시에, 높은 건물에서 아래로 뛰어내렸다. 흥, 하고 바람 가르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지고, 경찰들이 이상함을 감지하여 위를 올려다보는 순간에.

난 그들을 향해 후추 가루와 폭발 물질이 섞인 폭탄 을 던졌다. 그리고 재빨리 검은 마스크를 올려 썼다.

타닥, 하고 내가 착지 했고. 경찰들은 당황했다. 나는 당황한 경찰들의 주머니에 있는 침단 도구들을 손에 걸며 빼앗은 뒤, 뒤도 안 돌아 보고 달렸다.

"어,어어..?"

"핑"

내 말소리와 동시에 뒤쪽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의 비명 소리와 콜록 임이 귓가에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다시 반대쪽 골목길을 달리고 달려서, 숨겨둔 거처로 겨우 들어왔다.

"하, 젠장. 오늘도 간신히 피했네."

나는 경찰들에게 빼앗은 물건들을 한 구석에 쌓고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물론 2119년 같이 발달된 시대의 침대라고 보기에는, 단순히 매트리스뿐인 초라한 것 이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괜히 좋은 곳에 지내 보겠다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다가 경찰들 손에 끌려가, 그 죽음의 행성 -물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천국 이라고 이야기 하는 곳- 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죽음의 행성. 나와 엄마의 세계를 부순 그곳. 난데없이 나타나, 사람들을 홀린 곳.

그곳에 가느니 차라리 이 지구에서 죽는 것이 훨 나았다. 비록 오늘도 경찰들을 피하고 그들에게 경고 하느라 있는 힘없는 힘을 다 쓴 채 이지만, 이리 도망치고, 숨고, 피하는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당장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야기 하는 이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엄마를 기억 해줄 사람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니까.

나는 작게 틀어 놓은 홀로그램 뉴스 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어주다가,

/정부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이동 프로젝트가 2120년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온 나라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직 아름다운 행성-.뚝./

발로 차 꺼버렸다. 저런 개 소리는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이미 지구에 남기로 마음먹은 이상, 나에게 '아름다운 곳' 은 더 이상 없었다.

0

2100년. 지구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다. 이 행성은 지구를 돌던 행성이나 그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서 여태껏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곳 이었다. 그러나 우주비행선 폭파 사고, '그 사건' 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_행성 EG-2, 사람들이 부르는 말로는, '아름다운 행성'

이 행성의 겉모습이 보석조각이 촘촘히 박힌 듯 빛나며 장관을 선사했고 무지개와 황홀한 우주의 빛이 감싼 그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붙은 이름 이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아름다운 행성' 을 조사하는데 수년간 광적으로 노력했다. '지구 근처의, 숨겨져 있던, 새로운 행성!' 이 키워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에는 차고 넘쳤다. 그리고 수년간의 탐색 끝에 나온 결과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는 것.

미세먼지와 각종 매연에 휩싸이고 물은 반드시 정제해 먹어야 하는, 쓰레기 더미로 덮힌 지구보다도 더,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지구와 비슷한 중력과 깨끗하여 그냥 마실 수 있는 물, 맑은 산소와 아름답다 못해 황홀한 경치. 사막이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구와 비슷한 넓이를 가진 곳 이라는 것.

이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리고 너도나도 그곳으로 가기 시작했다. 풍부한 그곳의 자원과 생태는 사람들을 유혹 했고 사람들은 그것에 홀렸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대규모 이동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행성으로 실어 나르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었다. 정부와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도 다른 이들을, '아름다운 행성' 으로 이주 시키려는 것은 그들을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러먹기 위해서 라는 것이 명백히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혹은 외면하려 하고 그저 아름다운 행성의 겉모습에 홀려 이주 동의서 에 싸인 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 - 값싼 노동자들- 은 수 없이 죽어 나갔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여의치 않았다. '그 사건' 이 대규모로 되풀이 되는 것. 그게 프로젝트의 실상 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기에, 뼈 저리는 그 상실감 과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곳으로 나를 옮기려는 경찰들에게 쫓기고 숨어 사는 삶을 살더라도. 결코 죽음의 행성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마음먹었다.

2

그렇게 마음먹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나는 여타 일상처럼 내 생체 시계가 나를 깨우면 일어나고, 경찰들에게 걸리지 않게 골목 골목 길을 돌아다니며 종종 사람들이 이주를 하여 놓고 간 음식이나 물품들을 챙기다가 다시 돌아와 졸리면 잠이 드는 것을 반복했다.

뉴스는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종종 골목길을 돌아다니다가 마주쳤던 경찰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생수로 목을 축였다. 이제는 더 이상 골목길을 전전하며 물을 챙기기도 어려웠다. 이 근방을 돌아다니며 물품을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젠장. 거처를 이동해야 하나."

나는 탄식을 내 뱉으며 중얼거렸다. 아니면 위험을 감수 하고서 라도 큰길로 나가 편의점이라도 가는 것이 좋을까. 결국은 어느 선택이든 나가야 한다는 것에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푸석한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비척 비척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전에 경찰들로 부터 빼앗은 무기들을 주머니에 최대한으로 쑤셔 넣었다. 지금은 밤일까 낮일까. 생체 시계도 이제 정확히 믿을 것은 못 되었기에, 나는 그저 지금이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기를 빌며 거처를 벗어났다.

골목길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고 그곳을 나는 능숙하게 걸어 나갔다. 걷고, 걷고, 또 걸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나 혼자 뿐 이었고, 터덜 터덜한 발걸음이 울려 퍼지면서 그나마 드는 외로움을 달래 주었다.

...골목길을 뒤덮던 어둠이 서서히 사라졌다.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나는 곧 큰길에 도달한다는 사실에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시작했다. 아직 누가 남았는지 몰랐고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쏟아지는 빛에 나는 두 눈을 찡그렸다. 하얗게 변했던 시야가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큰 길 쪽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사람들이 다 떠났는지, 거리는 삭막했다. 고개를 올려 하늘을 보면 곧 이 지구를 칠 것 같은 높이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곳이 있을 뿐 이었다.

나는 그제 서야 체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곳으로 향했다는 것을.

나는 몸의 힘이 쭉 빠진 것 같은 느낌에, 골목길과 큰 길의 경계 사이에서 주저앉았다. 아름다운 그 행성이 내뿜는 빛은 내 몸의 반 정도를 휘감았다. 나는 솟구치는 외로움과 슬픔에, 울었다.

-내 가족을 죽인 그곳을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한다. 모두 그곳으로 향하고 싶어 하고, 그곳으로 향했다.

3

나는 그렇게 하염없이 울다가, 눈물에 비쳐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그곳을 다시금 바라봤다. 몸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나는 이 느낌이 분노 때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그 행성이 너무나도 싫어서. 원망스러워서.

나는 주저앉은 몸을 겨우 힘을 짜내어 일으켰다. 그리고 그 행성을 바라보던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다.

나는 그 행성을 등 돌린 채, 나에게 분노와 원망을 심은 그곳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피하고 또 피했다. 하지만 결코,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참담한 심정 이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저 이렇게 하염없이 걷는 것뿐이.

4

...-저벽, 저벽.

나의 것이 아닌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기척에 나는 황급히 몸을 낮추고 근처에 있는 빈 상자 속으로 숨어 들었다. 그리고 뚫린 창문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이상한 생김새를 갖춘 이들 이었다. 푸른 몸에 얼굴에는 검은 자국들이 무너처럼 새겨져 있고, 삐쩍 마른 듯한 손을 가진 이들. 거기에 수색대 같이 보이는, 다양한 장비를 갖춘 옷을 입고 있었다. 만약 그림자만 본다면 사람이라고 쳐 줄 수도 있었지만, 분명 밝은 상태에서 보기에 사람은 아닌, 처음 보는 모습 들 이었다.

마치 외계인 같은.

나는 그들의 모습을 흘겨보다 그 3명 중 가장 키가 작은, 어찌 보면 소녀 같은 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심연과도 같은 것을 정확히 눈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재빨리 구멍으로 보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며 몸을 더 웅숭그렸다. 그리고 모습을 숨기려 최대한 노력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다.

저벽, 저벽, 저벽.

심장이 쿵쿵쿵쿵 뛰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난동을 부렸다. 저들은 누구일까. 무슨 일로 그 거리를 거닐고 있던 것일까. 나는, 나는.. 어떻게-.

끼익...

내가 숨어 있는 빈 상자의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매우 가까워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쿵쿵거리며 크게 들리는 이 심장 소리가, 차라리 멈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들은 결국 숨어있는 나를 발견한 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저벽 거리며 나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심장소리도 점점 커졌다.

탁.

소리가 끊겼다. 나는 떨리는 손을 뒤로 한 채, 벽에 기댔던 몸을 살짝 돌리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주친 - '그들.'

'그들' 중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소녀 같은 모습을 한 아이가 내게 물었다.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참으로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 없었다.

5

"...어느 별 이라니..."

나는 당황스러운 지금의 상황과 질문에 떨리는 말투를 최대한 감추려 노력하며 되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는 작게 웃고는, VR 안경 같이 생긴 -구시대적인- 고글을 나의 눈가로 내밀며 씩씩했다. 분명 그것이 위험한 것 일 수 있다고,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씩씩하자-

순식간에 시야가 밝아졌다. 분명 상가의 구석진 곳에 있었건만. 내가 보았던 금간 벽과 창가에 비친 무너진 건물들은 사라지고, 반짝이는 도시가 보였다. 이 도시의 모습은 분명, 사람들이 떠나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 과 비슷했다. 물론 더 화려하고, 처음 보는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있기는 했지만.

이곳에서 나는 그 도시를 바라본 채, 드넓은 풀숲인지 아닌지 모를 곳에 쪼그린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분명 사람들이 아닌 '그들' 이 시선에 걸렸다. 주변 배경은 바뀌었지만,

'소녀' 와 그들은 분명 암흑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경악했다. 이제 그들은 아까 보았던 수색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 특유의 번쩍이는 스타일이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물고기 비늘 같은 모습의, 처음 보는 스타일의 옷 말이다.

나는 그 모습에 이제 서야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외계인 같은 것이 아니라, 외계인 이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공간에 와 있다고 말이다.

“너희... 누구야.”

간 크게도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물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그런 것 일수도 있었다. 나는, 이곳이 지구를 벗어난 곳이 아니기를 빌고 또 빌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무엇을 위한 것 이었는데, 단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는 없기에.

6

'소녀'. 내가 소녀라 이름 붙인 외계인은 웃었다. 해맑게 웃었다. 그리고 몸을 숙여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너는 지구에서 벗어나지 않았구나. 그 -유토피아- 로 가지 않았어.]

나는 아까도 잠깐 들었지만 익숙하지 않은, 찢어 지는 듯한 그 소녀의 목소리에 인상을 무의식 적으로 찌푸리고는 물었다.

"유토피아라면,... 그 이상한, 숨겨졌던 행성 말하는 건가?"

[응. 곧 부서질 환상의 섬 말이야.]

소녀는 나의 물음에 답했다. 아름다운 행성 은 곧 부서질 환상의 섬 이라고.

"_환상의 섬?"

그것이,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잠시 알지 못했다.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 부정을 부정 하듯, 그 순간에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왔다. 폭발. 그 생각에 먼저 두려움이 앞섰다. 나는 '그 순간' 이 겹쳐지는 것 같은 그 소리에, 당황스러움에 나에게 쓰인 고글을 두 손으로 더듬다가 벗었다.

그러자 밝았던 도시가 아닌, 폐허가 된 세상이, 현실이 다시금 나타났다. 내 주변에 있던 '그들' 은 더이상 보이지 않았고, 대신에 건물을 빠져나와 하늘을 보자,

나의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처럼.

불길이 솟으며,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며-

모든 이들이 이주한 '아름다운 행성' 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과거에 보았던 '별의 죽음' 다큐멘터리 영상이 겹쳐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보여 지는 파괴의 현장과 달리 이곳, '지구'로는 여파가 오지 않았다. 그저, 그곳만 스스로 불길을 내뿜으며, 기막힌 장관을 선보이며 붕괴할 뿐 이었다.

나는 저곳으로 떠난 이들을 생각했다. 가까운 이들은 없었지만, 과거에 만났던 이들은 많았다. 엄마의 친구, 옆집 아이, 자신이 잔혹한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을 도와주셨던 분들-

이상한 느낌 이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틀어진 것 같이. 어딘가 어그러진 것 같았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아니, 현실 이면 안 되는 건가.

나는 손에 들려 있는 고글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썼다. 그들이 이것이 현실이 아님임을 증명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아직도 나의 앞에 서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넌 알고 있었어..?"

무언가 허탈한 목소리가 나왔다. 나는 그 소녀를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언가의 답변을 기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녀는

까르륵, 웃고는 답했다.

[이제 우주에서 '인간' 은, 너 혼자야.]

이것은 내가 원하던 답이 아니었다. 동공이 확장되고, 손이 다시 고글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변도 더듬었다. 여기는 폐허가 된 '지구' 인지, 아니면 푸르른 것이 펼쳐진 '그들의 세상' 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부서진 벽이 만져지면서도 부드러운 풀과 같은 감촉도 느껴졌다. 소녀는 내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어 말했다.

[그 행성은 너무나도 불안 했거든. 너무나도 아름다웠지만, 너무나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어. 수명을 다해 갔던 거야.]

수명을 다해 갔던 거야-. 그 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찢어 지는 듯한 소리에 대한 불쾌감은 사라진 지 오래 였다.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 는 그것을 알고 지구로 대피하여 내려오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거 알아? 너희는 내려간 우리를 모두 죽였어. 아니, 그저 우리가 지구에서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이아몬드' 를 '돈과 가치'라는 고리 안에 가두어 만지지도 못하게 했을 뿐이겠지. 결국에 죽게 만든 것은 맞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소녀는 이제 내 앞에서 빙글, 빙글 돌며 이야기를 해갔다. 그 여유와 말투는, 마치 소녀가 준비된 대본을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도 했다.

[너희는 '인간' 들만 생각했어. 다른 종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지. 누군가의 필요는 모두 목살 되었어.단순히 누군가의 사치를 위해.]

나는 고개를 조금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 인간의 무엇을 비판하는 것일까. 그 대답에 대한 형태가, 잔혹한 현실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계획했지. 그들은 정작 누구보다 가까이 두고

있었지만 알지 못한 우리 행성을, 죽음의 행성을-그들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표면을 도려내고, 폭파 시켜서 보이는 아름다운 상처로 유혹 하자고.]

"아-."

나는 탄식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부르는 그 행성과 그 행성이 밝혀지는 장면을 떠올렸다. 충돌에, 드러나는 보석 같은 빛에. 그런데, 그것이 계획된 것 이라니. '그 사건' 의 희생과 죽음이, 계획된 것이었다니.

돌이 세계 머리를 친 것 같은 느낌 이었다. 나는 그 소녀를 원망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어라 따지며 말할 수 없었다. 후, 하.. 하며 숨을 쉬려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물속에 빠지는 듯 목이 막혀 왔기에.

소녀는 이런 나의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 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말을 이어갔다. 나는 그만, 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성공했어. 그들은 대규모 이동을 하더라. 우리는 그 사이에 아래로 내려왔지. 그리고 다시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 냈어. 봐, 저 아름다운 파괴의 현장을. 행성의 죽음을!]

소녀가 마르고 푸른 손을 뻗어 뻑뻑한 도시의 위쪽을 가리켰다.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아까 내가 '지구' 에서 보았던 그 행성의 폭발이 작은 크기로 보였다. 아니, 이곳도 '지구'였지. 나는 땅을 짚은 손을 주먹으로 꼭 말아 쥐었다. 결국 지구의 어느 곳 이든 간에, 저 폭발은 결코 거짓된 것이, 환상이 아니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말도안돼..!"

나는 울부짖듯 그 소녀 앞에서 외쳤다. 그 소녀는 그저 웃을 뿐 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속삭이듯 추가적으로 이야기 했다.

__[마지막 남은 인간이여, 부디 고독 속에 환희를 느끼며 잠 들기를.]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 이였다.